뉴스홈 | 최신기사

< 盧전대통령 서거> 검찰총장 말없이 조문

송고시간 | 2009-05-25 11:58











윤종석 기자 기자페이지



<盧전대통령 서거> 분향하는 임채진 검찰총장

(서울=연합뉴스) 이지은 기자 = 임채진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역시박물관에 마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에서 분향하고 있 다. 2009.5.25

jieunlee@yna.co.k

(서울=연합뉴스) 강훈상 임형섭 기자 = 임채진 검찰총장이 25일 서울역사박물관에 마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 를 찾아 조문했다.

임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23분 체어맨 관용차를 타고 문성우 차장, 한명관 기조부장과 함께 분향소에 도착했다.

검은색 정장 차림의 임 총장은 `검찰 책임론'을 의식한 듯 시종일관 비통한 표정이었다.



임 총장은 공동장례위원장인 한명숙 전 총리와 간단히 악수하고 영정 앞에서 묵념한 뒤 서둘러 분향소를 떠났다.

취재진이 거취 문제와 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질문들을 쏟아냈 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.

임 총장이 차량에 오르자 경찰관 20여명이 차량에 접근하는 취 재진의 접근을 막았다.

이날 임 총장은 분향소 방문 사실을 외부에 미리 알리지 않은 것 으로 전해졌다.

한편 법무부는 이날 김경한 장관을 비롯해 간부 전원이 서울역사 박물관 분향소를 찾아 조문키로 했다고 밝혔다.















핫뉴스 →

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,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

박진,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"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"

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...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

"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"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'그날...

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...여왕 "양국...

프로야구 LG-SSG전 오심 내린 심판, 2군 강등...

기원전 2~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..."가장 오래...

한국 유튜버,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...



김 장관은 이미 이날 오전 9시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조문했으며, 이귀남 차관과 실·국장, 본부장 등 10여명은 오후 3 시께 같은 분향소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 예정이다. 법무부 관계자는 "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에 충격과 비탄을 금할 수 없다는 뜻을 함께해 장관 이하 간부 모두가 조 문키로 결정했다"고 말했다. hskang@yna.co.kr


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hysup@yna.co.kr

관련기사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09/05/25 11:58 송고

<盧전대통령 서거> 검찰 `뒤숭숭'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		
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		

현장 영상 →

▶ 01:18 ▶ 02:22

[영상] 입-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...누가 학대했니 [영상] 곡시포·수송헬기·장갑차...美, 꺼렸던 무기들 [영상]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뜴 결국 우크라에

링컨 등 후보군"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

에디터스픽 Editor's Picks

● 영상

▶ 01:59

[영상] 윤석열, 안철수 '패싱' 질문에 "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"

● 뉴스

尹당선인·安위원장 만찬 회동..."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

尹 당선인 "韓,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 화...美와더 강력한 동맹"

'검증의 시간' 시작됐다...한동훈, 청문회 준비 돌입

"'의학에 뜻' 정호영 아들,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"

댓글 많은 뉴스

김건희 여사 팬카페, '악성 댓글' 누리꾼들 경 □ 144 찰에 고발

2 '유퀴즈' 尹당선인 출연 논란..."프로그램 취지와 ⊕ 66 안 맞아"(종합)

3 정호영 자녀,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☐ 61 대병원 자원봉사

4 두문불출 이재명, 이발·염색...조기등판론 속 활

5 문대통령, 손석희와 대담...靑 "임기 5년 소회 밝 ⊕ 40 힐 예정"

뭐하고 놀까? ## 😛 →



















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

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#D 그래픽 **뉴스 상품**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

테미별뉴스 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**출판물**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

뉴스+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헤드라인 **광고** KTX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/홈페이지 출판물

 모바일 뉴스
 모바일 앱
 보다시진
 이미지
 그래픽
 동영상
 인물

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고, Español Français **관련사이트** 연합뉴스TV 인모맥스 한민족센터 K컬쳐기확단(K-ODYSSEY) 채용 IR.클럽 #홍

계약사/제휴문의

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

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(02-398-3000) 사이트맵

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| 등록번호 문화,나00009 | 등록일자 1980.12.29 | 발행일자 1980.12.29 | Tel. 02-398-3114

(C) [대표이사]성기홍 [편집인]조채희

Yonhanney